

축적된 경험의 가치를 나누며

A to Z HRD 솔루션을 디자인하다

글_홍희지 기자



안수현 디어빌리티그룹 대표

경력 사항

현) HRD Solution 디어빌리티그룹 대표
ICRU 조직소통연구소 소장
신구대학교 교양학부 외래교수
고용노동부 한국직업방송 전문 컨설턴트
국세공무원교육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전문 교수
대한프레젠테이션협회 1급 컨설턴트

전) SK 리더십개발센터 임원교육 매니저
BASF Korea 인사팀
The Estée Lauder Companies Inc. Dr.Jart+브랜드
인사팀 HRD담당

학력 사항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HRD전공 석사 과정

“맞춤형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고, 역량강화와 성과창출에 기여하며, 성장을 위한 골든타임에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내겠습니다!”

안수현 디어빌리티그룹 대표는 실무교육 전문 브랜드를 지향하며 젊고 활동적인 강사들과 함께 다양한 공공·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HRD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역은 사내강사 양성과정, 커뮤니케이션, 신입사원교육, 리더십, 비대면 교육기법 등으로 다양하다. 궁극적으로 안 대표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축적한 경험이 만나 구성원 개인의 역량개발과 조직 내 문제해결이 이뤄지도록 돕고자 한다. 그에 맞춰 안 대표는 다양한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경험은 일과 삶의 향방을 바꾸는 귀중한 자산인 까닭이다.



▲ 안수현 대표는 HRD 프로그램 개발자로 때로는 지식과 기술을 전하는 교수자로 다채로운 HRDer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안수현 디어빌리티그룹 대표는 유년시절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즐겼다. 그랬던 그에게 HRD 실무자와 사내강사 경험은 의미가 남달랐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 현장에서 인정받는 강사라는 새로운 길을 제시해줬기 때문이다. 흘러간 과거를 돌아보며 안 대표는 “기업교육은 반드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하며, 수많은 사람 앞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은 전문성과 소명감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더 나은 일과 삶을 위한 실마리를 찾게끔 도와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젊고 활동적인 강사들과 합심해서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비즈니스 툴

활용을 비롯해 사내강사 양성과정, 커뮤니케이션, 신입사원교육, 리더십, 비대면 교육기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실무교육 전문 브랜드를 지향하며 기업의 각종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는 안 대표의 철학에서 비롯됐다. 그는 “강사라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구성원의 문제를 잘 진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도출된 솔루션은 하나일 수 없기에 다방면에 걸쳐 꾸준히 역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강사는 학습자들에게는 의사와 같다. 그러니 다채로운 처방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해내고 있기에 안 대표는 다양한 공공·민간기업 등에서 교육 의뢰를 받으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팬데믹 이후 안 대표는 타고난 도전 의식으로 빠르게 비대면 강의를 준비했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발전시켜 본인만의 경쟁력을 높여왔다. 현재 HRD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에도 빠르게 적응하면서 강의 콘텐츠에 녹여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는 디어빌리티그룹의 특화점에 관해 간명하게 풀어냈다.

“우리는 ‘학습자 분석과 이해’ 그리고 ‘비대면 교육 컨트롤’을 중심에 두고 온라인 교육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주도학습이 이뤄지도록 학습자와 소통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장에서 학습자와 교수자가 서로 만나 빠르게 소통했던 때와는

“

현장에서 치열하게 일하는
구성원의 문제해결을 위해
폭넓은 분야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축적한 전문성과
강사로서의 소명감을 바탕으로
A to Z HRD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 안수현 대표가 신입공무원에게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한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판 자체가 다릅니다. 자칫하면 이러닝과 같은 일방향 교육에 그칠 수 있고, 학습자들의 피로도가 가중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교육 자체를 기피할 수 있어요. 이는 비대면 교수학습과 학습자 컨트롤링 역량을 갖춘 강사들이 기업의 러브콜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직이 가장 고심하는 문제의 해결자니까요.”

그런가 하면 안 대표는 전문 강의영역인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암묵지를 형식지로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경험, HRD 실무자로 활동했던 경력에 강의와 학문을 더해 높여가고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다음의 설명을 덧붙였다.

“저는 ‘축적된 경험의 가치’를 수많은 학습자와 나누고자 합니다. 경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 학습자 개개인에게 체화되어 있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암묵지라고 하죠. 저는 강의를 통해 만나는 학습자들과 소통해서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암묵지가 형식지로 변화하도록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교육을 받으며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HRD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의 경우 ‘경영의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하기 위한 폭넓은 시야를 넓혀나가길 당부드립니다.”

경험은 억만금을 쥐도 살 수 없는 학습자 고유의 귀중한 자산이다. 그런 만큼 안 대표가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고, 역량강화와 성과창출에 기여하며, 성장을 위한 골든타임에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가며 HRD 활동을 통해 교류하는 학습자들에게 일과 삶의 방향을 바꿀 귀중한 경험을 선사해주길 응원한다. **HRD**